

“풍수는 단순한 명당찾기 아니라 사람관계 등 모든 것과 통하죠”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 조용헌 풍수지리학자

편히 잠들수 있는 곳이 명당... 전쟁터·묘지 등 흉지 집터로 안 좋아
‘적선’할 줄 알아야 일 술술 풀려... 정치인·기업인에 풍수는 중요

“풍수(風水)라는 게 믿기 쉬운 이론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야 그 맛을 알기 때문이지요. 과학적으로 영혼한 얘기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풍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대대로 경험하고 믿어왔던 것이므로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풍수라는 겁니다.”

광주일보 제5기 리더스아카데미가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는 이같은 말로 강의의 시작했다. 풍수지리학자인 조 교수는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 수강생들이 관심을 갖는 풍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풀어내었다.

풍수는 음양론(陰陽論)과 오행설(五行說)을 기반으로 땅에 관한 이치를 깨닫는 논리구조다.

예로부터 자손들이 조상의 덕을 보려고 묘지를 찾기 위해 풍수를 많이 이용했다.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찾

을 수 없는 ‘구닥다리’ 관습이지만 아직까지 풍수론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집안에 누군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땅속에 묻으면 열흘 내 직계가족의 꿈에 망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잘 들어간 거고 오히려 우울한 표정이 보이면 잘 못 들어간 거라고 판단합니다. 망자가 나타나는 꿈을 꾸는 것은 본 인당에 찔렸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개개인의 판단이지요. 생(生)과 사(死)의 순간은 이렇듯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조 교수가 얘기하는 명당은 ‘잠을 잘 잘 수 있는 곳’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람은 좋은 맥(脈)과 기(氣)가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 ‘백괴피가 붙어일숙이라’. 커피 백전보다 잠 한번 자는 게 더 좋다는 의미다. 명당은 첫째 건강해야 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지론이다.



조용헌 교수

그는 명당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마사토를 제시했다. ‘비석비토(非石非土)’.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희고 무래한’ 돌가루가 된 흙을 이야기하는 데 땅을 파다가 이 마사토가 나오면 그곳에 집을 짓든지 묘지를 써야 한다. 묘지 자리를 팔 때 포크레인을 가져다 놓고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증조부 묘를 문필봉(文筆峰) 산의 모양이 붓처럼 뾰족할 때 불리는 지명)에 썼다고 해요. 모후산이 바라보는 곳인데 그때 지관(地官· 땅을 선정할 때 지질과 길흉을 판단하는 사람)이 4대에 문장가가 나온다고 했답니다. 지방대를 나는 스펙으로 신문 칼럼을 쓰며 먹고 사는 게 제가 생각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조 부가 는 열 마지막 주고 배팅을 잘 하신거죠.”

집터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과거 전 쟁터였거나 대형 사고로 사람이 많은 죽은 터는 피해야 한다. 공동묘지였던 곳에 택 지개발을 한다면서 아파트나 건물을 짓기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5기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풍수지리학자 조용헌 교수가 풍수와 사주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풍수지리학자이면서 칼럼니스트, 동양 학자, 불교학자이기도 한 조 교수는 풍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중간 중간 정치와 경제계 인사들의 사주팔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시며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풍수를 연구하다 보니 재벌이 된 기업가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습니다. 다들 불쌍한 사람들이예요. 사람들을 만나도 ‘나한테 무얼 요구하려 하나’ 걱정만 하고 있

습니다. 전부가 돈으로 맺어진 관계들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요.”

조 교수는 또 정치인들의 태동과 가계 내력 등을 전해주시며 ‘적선’이 있어야 본인 이든 후대 일이 잘 풀린다고도 이야기했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은 돈을 어디에 써야하는지 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공을 위해 흘러야 할 세 가지인 피와 땀, 눈물 중에 땀을 안 흘려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정치철학은 딱 한가지입니다. 이익이 생기면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전에 도취해서도 안됩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에게 풍수는 중요하합니다. 풍수라는 게 단순히 명당 보고 명당을 찾는 게 아니예요. 사람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로체 정상에 올려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김홍빈 대장 “등정하면 부르겠다” 약속 지켜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53) 대장이 광주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지난 19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전 11시15분) 세르파와 함께 세계 제4위 고봉 로체(Lhotse·8516m) 정상에 오른 김 대장은 희박한 공기 속에 강풍이 심하게 불어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김 대장은 정상 도전 직전인 지난 14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5·18 37주년을 기념하고 5월 정신을 기리며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등정일을 18일로 잡았다”며 “정상에 오르면 9년 만에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게 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일보 5월 16일자 22면> 비록 약천후로 인해 정상 등정일은 하루 미뤄졌지만 ‘임 행진곡’을 부르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정상 동영상은 함께 등정한 세르파가 촬영했다. 영상은 광주일보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kwangju.co.kr)에서 볼 수 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도전 중인 김 대장은 이번 등정으로 장에이으로는 세계 최초로 8000m급 10개 봉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다. 14좌 완등까지는 다음달 도전 예정인 낭가파르브트(8125m)를 포함해 4개 봉만 남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KT ‘올인 빌리어드’ 동호회 배식봉사

“단순한 사내 동호회 활동을 넘어 동료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뿌듯합니다.”

KT(회장 황창규) 호남네트워크운용본부 사내 동호회 ‘올인 빌리어드’(회장 김대중) 회원들이 24일 오전 광주시 남구 서동 무료급식소 ‘개미꽃동산’을 방문해 배식봉사를 펼쳤다.

‘올인 빌리어드’는 KT 사내직원 37명이 모여 매주 당구를 즐기는 당구동호회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매달 1차례씩 무등산 정화활동과 배식봉사 등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날도 회원들은 그동안 모은 동호회비에 사비를 보태 쌀 20여 포대를 구입해 ‘개미꽃동산’에 후원했고, 지역 독거어르신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배식을 도왔다.

김대중 올인 빌리어드 회장은 “동호회 회원들과 취미활동 외



에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 정기적인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담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다산, 강진에서 새로운 나라 설계하다

내일 강진아트홀 ‘경제유포 저술 200주년 기념 학술강좌’

다산연구소(이사장 박석무·사진)와 강진다산실학연구원(원장 김도형)은 오는 26일 오후 1시50분 강진아트홀에서 ‘경제유포 저술 200주년 기념 학술강좌’를 개최한다.



로 올해가 200주년이 다. 다산은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과, 뜻있는 선비로서 방관할 수 없다는 사명감에 “오래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자!”(新我之舊邦) 취지로 ‘경제유포’를 저술했다.

이번 학술강좌는 1801년부터 1818년까지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다산 정약용이 그의 대표 경제서인 ‘경제유포’를 저술한 것을 계기로 열린다. 그 때가 1817년으

굿바이, 제임스 본드

007 최다 출연 로저 무어 별세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역으로 유명한 영국 배우 로저 무어가 23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무어의 가족은 성명을 내고 그가 짧은 암 투병 끝에 스위스에서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런던 외곽에서 경찰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60년대 TV 드라마 시리즈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그를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한 작품은 단연 ‘007 시리즈’다. 그는 1973년 ‘007 시리즈’의 ‘죽느냐 사느냐(Live And Let Die)’의 주인공을 맡은 후 1985년 ‘뷰 투 어 킬(A View to a Kill)’까지 7편의 본



드 시리즈에 출연하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손 코넬리, 조지 라젠비의 뒤를 이어 45세의 나이에 3대 제임스 본드가 된 그는 57세까지 12년에 걸쳐 본드 역할을 소화하며 역대 최다 제임스 본드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이상만(충흥건설 경리부사장)·양성재씨 장남 광희군 장유진·이숙자씨 장녀 효영양=27일(토) 오전 11시 50분 광주시 서구 광주힐스테이트인호텔 3층 로즈홀.

▲조용대(서광주제무서 근무)·곽혜숙씨 장남 우진군 이희만·원미자씨 장녀 은슬양=28일(일) 낮 12시30분 서울 강남 테헤란로3동 3층 키티지홀.

▲하태욱(전 여수경찰서장)·김태연씨 장남 일근 장윤식·김오례씨 장녀 수희양=6월 3일(토)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봉웨딩홀 2층 모던홀.

▲신영숙씨 장남 김효민군 안효윤·박용자씨 딸 지민양=6월 3일(토) 낮 12시 30분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

동문회

▲인성고 동문회(회장 노익균) 가족 한마당 ‘동행’=28일(일) 오전 9시 광주 인성고등학교 잔디구장.

향우회

▲재광영암군향우회(회장 조성희) 제 67회 정기총회=25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남구 백운동 프라도호텔 3층 에메랄드홀 062-654-6600. 문의 박미서 사무총장 010-3640-3308, 위성은 총무국장 010-3604-9292.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종친회(회장 정진원) 2017년 정기총회=30일(화)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대의동 광주무등고시학원 301호.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서구중동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

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중장년세대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 참가자=스마트워크 & 오피스(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중년들의 몸퍼기운동(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생애설계 이해와 방향(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광주 광산구 소촌동 232-2, 광주시공무원교육원 4층 강당. 문의 062-600-5242.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사)전주씨대동중약원 청년부 회원=‘승조돈종’과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 종묘·사직대제, 조선왕조 500년 문화·역사를 함께할 전주이씨 또는 완산이씨, 문의 광주·전남청년이화회장 이철환 010-3601-1422.

부음

▲오기탁씨 별세 철호(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장)씨 부친상=발인 25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제1분향소 062-

612-8366.

▲이만호씨 별세 돈삼(전남도 대변인실 주무관)씨 부친상=발인 26일(금) 광주시 북구 우산동 구오전 장례식장 062-960-4444.

삼가 故人の冥福을 빕니다	
301호 故고삼혜 님(여/95세) 子/子婦 : 조숙자, 정향태/희갑인 女/婿 : 정현숙/김성문, 정숙, 진숙/정명호 *발 인 : 5월 25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2	401호 故서희철 님(남/78세) 子/子婦 : 사남호/김영희, 진호/박이진, 철민/김강희 女/婿 : 서성삼/최민규 未亡人 : 김경아 *발 인 : 5월 25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3
402호 故한용석 님(남/69세) 女/婿 : 한수경, 희경/김인준 未亡人 : 김영조 *발 인 : 5월 25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3	101호 故김선혜 님(여/47세) 子/子婦 : 신광찬/박혜수, 성수 女 : 신진희 夫/妻 : 신윤상 *발 인 : 5월 25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000
102호 故김태상 님(남/68세) 子/子婦 : 김민성/연희영, 민수, 성수 未亡人 : 최 영 *발 인 : 5월 25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	
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 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 대표이사 구 제길	